

스크랩 드래건

나오미 크리처

옛날 옛적에 한 공주가 살고 있었어.

- 주인공이 반드시 공주여야만 하는 거예요? 상인이냐 학자, 또는 회계사의 딸은 안 되나요?

회계사? 회계사가 전래 판타지 동화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 거기 사람들도 돈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도 세금 장부, 청구서, 손익계산서 같은 걸 작성하겠죠. 그렇지만 왕만 아니라면 정육점 주인이나 빵집 주인, 또는 촛대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회계사가 적당하겠어. 좋아. 옛날에 회계사의 딸인 한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언니가 둘 있었어. 이 젊은 자매 중에서 맏이는 영리했고, 둘째는 강했고, 막내는 친절했지.

- 주인공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쩔 건데요? 내 말은, 막내 말이에요. 그리고 큰언니가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 어쩔 건데요? 불공평하잖아요.

난 막내가 강하지 않다거나 맏이가 친절하지 않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모두가 가장 강한 게 둘째 딸이고 가장 상냥하고 순수한 건 막내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야.

- 어쨌든 사람들은 그냥 이유 없이 막내가 상냥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들은 궁전에 살았어. 아니, 그보다는 크고 안락한 집이 낫겠다. 만약 그들이 공주였다면 내가 막내에게 도깨교가 딸린 멋진 침실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 공주가 아니어도 도깨교는 가질 수 있어요. 어쨌든 부모님이 그냥 그게 멋지다는 이유로 하나 만들어주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좋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매우 인정이 많았기 때문에, 동물들이 그녀를 믿고 따랐다는 거야. 동물들은 그녀를 찾아왔고 그녀는 곤경에 처한 동물을 보면 무슨 수를 써서든 도우려고 애를 썼어.

- 그건 정말 불편할 거예요.

동물들이 따르는 게?

- 음, 동물들이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말이에요. 엄마가 산책을 나섰는데 길 잃은 고양이 눈앞에 나타나서 가지도 않고 버틴다면...

어쨌든 정말 멋진 고양이일지도 모르잖아.

- 아니면 매일 새벽 4시에 야옹거리며 잠을 깨우는 고양이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동물이 그녀를 믿고 따른다는 사실은 독자에게 그녀의 심성이 어떤지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야. 그녀가 겉으로만 착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 음, 난 공주들보다 동물이 더 좋아요. 동물들이 그녀를 쫓아다니게 내버려 두세요. 그건 괜찮겠어요.

어느 날, 그들의 도시에 심각한 위험이 닥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그 도시는 꺼져버린 화산, 아니 그보다는 다들 꺼졌다고 믿고 있던 화산 근처에 있었거든. 그런데 강력하고 사악한 마법사가 화산의 정령을 깨워서 이제 그게 곧 폭발할 것처럼 끓어오르고 있는 거지. 마법사가 사악한 마법으로 계속해서 화산의 정령을 자극한다면, 화산은 불과 용암을 분출할 테고 도시는 완전히 파괴될 게 뻔했어.

- 화산은 정령이 아니라 지각력 때문에 분화하는 거잖아요.

이건 마법의 화산이야.

- 엄마도 참, 만약 마법사가 지각력을 조작할 수 있다면 왜 귀찮게 화산 폭발로 도시를 위협하겠어요? 그냥 지진 한 방이면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데요.

좋아, 화산을 분출하려 하는 건 마법사가 아니었어. 드래건이었어. 거대하고 강력한 드래건. 그 드래건은 불을 내뿜을 수 있고 근처에 있는 꺼진 화산 분화구 안에 살고 있었어. 사람들에게 황금과 보물을 선물하지 않으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했지.

- 그렇지만 나는 드래건이 좋아요. 멋지잖아요.

음, 그래서? 나는 프랑스 사람들을 좋아하고 프랑스가 멋진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프랑스의 정치가 장-마리 르펜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 프랑스 사람 모두 좋거나 모두 나쁘지 않듯이 드래건도 마찬가지야.

- 알았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렇게 도시는 사악한 드래건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 주인공을 공주로 설정할 수 있게 네가 날 가만히 내버려 뒀다면, 그녀는 도시를 구해야 한다는 데 책임을 느낄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공주가 아니지.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 그들이 민주주의 체제에 살 수는 없어요? 심지어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왕조보다는 낫잖아요.

흠,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민대표 의회는 누구라도 용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어.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용감하거나 강인하거나 영리한 모든 사람에게 도시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간청했지. 만약 그들에게 왕이 있었다면, 그는 자식 중 하나와 도시를 구하는 사람을 결혼시켜주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국민대표 의회의 아들딸과 결혼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 도시를 구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이 뜨거운 관심을 받아서 매우 낭만적인 신붓감, 또는 신랑감이 되리라고 그들이 특별히 언급했다고만 하기로 하자.

- 다른 사람들이 맺어주는 결혼은 좀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직 드래건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나한테 관심을 두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소름 끼치기는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결혼하기 싫은 사람과 결혼하지는 않을거야. 어쨌든, 큰딸이 먼저 시도했어. 그녀는 드래건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시작했지. 근처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찾아본 후에는 며칠이나 가야 나오는 더 큰 도시로 떠났어. 시간이 날 때마다 집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고 알아낸 모든 정보를 나누었지. 하지만 그곳은 광대한 도서관이었어. 그녀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우려면 몇 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둘째 딸은 드래건과 직접 대결하기로 마음먹고 집을 떠났어. 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

-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말은 그 여정 중에 죽었다는 거야. 드래건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 난 둘째가 죽는 거 싫어요. 불공평하잖아요.

맞아, 그렇지. 근데 죽음이라는 게 원래 공평하지가 않아.

- 그렇지만 난 그녀가 좋았다구요!

그랬구나.

-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안되지.

- 굳이 그녀를 이야기에서 빼버려야 한다면, 그냥 잠들었다고 하면 안될까요?

안 돼. 그녀는 죽었어. 그래서 막내가...

- 아무래도 난 막내가 드래건을 물리치려고 하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녀도 잡아먹힐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녀가 도시의 유일한 희망이야.

- 상관없어요. 나는 막내가 안전한 집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그녀의 부모님이 했던 말이기도 해. “우리는 이미 딸 하나를 잃었어. 그러니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딸을 잃게 하자꾸나”라고.

- 게다가 그녀는 제일 착한 사람이잖아요.

맞아.

- 착하다는 걸로 어떻게 드래건을 물리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어. 심지어 가끔은 그녀가 듣는 데서도 그런 말을 했지. 그래서 이름이 헤더인 막내딸은 일단 집에 남아 있기로 했어.

헤더에게는 백지로 된 새 노트가 한 권 있었는데, 그녀는 거기에다가 큰언니가 가족에게 보내온 편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 비록 자신이 직접 드래건을 물리칠 수는 없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편지에는 드래건의 모습을 풀어놓은 도해, 드래건에 관한 고대 철학, 그들의 습성과 은신처 등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었지.

하지만 헤더는 이따금 책을 뒤집어 놓고 뒤쪽에서부터는 죽은 언니에 관한 내용을 채우기 시작했어.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도 있었지만, 그것 말고도 언니를 생각나게 하는 온갖 것들을 책에 채웠지. 언니가 가장 좋아하던 옷에서 떼어낸 천 조각과 언니가 책 속에 눌러 놓았던 꽃송이도 넣었고, 언니가 쓴 시를 발견했을 때는 그것도 책에 베껴서 써넣었어. 재미있는 건, 언니가 드래건을 정말 좋아했다는 거야.

- 드래건은 정말 멋지니까요.

그 사실 때문에 언니가 드래건에게 잡아먹혔을 지도 모른다는 게 더욱더 역설적이게 된거지.

어느 날 오후, 헤더는 자신의 책과 점심을 챙겨 들고 키우는 개(녀석의 이름은 베어였어)와 함께 집에서 멀지 않은 숲이 우거진 호숫가에 갔어.

- 이 이야기 속에서 개는 죽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이 개가 죽을 일은 없어.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래.

- 좋아요.

그들은 호수 옆에 앉았어. 헤더는 샌드위치를 꺼내서 절반을 베어에게 주었지. 그때 뉴트리아 한 마리가 헤엄쳐 올라와서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어. “안녕, 뉴트리아?” 헤더가 인사했고 뉴트리아는 달아나지 않았어. 헤더는 샌드위치를 한 조각 떼서 던졌어.

- 그거 진짜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 뉴트리아는 실제로 있는 동물이야. 아주 큰 설치류인데 비버랑 정말 큰 쥐의 잡종처럼 생겼어.

- 오, 멋진 것 같은데요.

뉴트리아는 베어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쏘아보다가 샌드위치 조각을 잡으려고 둑 위로 올라갔어. 베어는 때때로 다람쥐를 쫓기도 했지만(그리고 뉴트리아는 충분히 다람쥐처럼 보여서 쫓아갈 만도 했지만), 지금은 헤더에게서 샌드위치를 더 얻어내는 데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지. 녀석은

강아지다운 천진난만한 얼굴로 꼬리를 흔들었어. 헤더는 한숨을 내쉬면서 샌드위치를 하나 더 꺼냈어. 이런 식이면 먹을 게 금방 동나고 말 것 같았지. 그래서 베어에게 말했어. “가서 샌드위치 하나 더 만들어와, 베어.”

- 그래서 베어가 샌드위치를 만들어왔어요?

당연히 아니지. 개가 샌드위치를 만들 줄 알면 스스로 만들어서 다 먹었겠지. 뉴트리아는 헤더가 준 샌드위치 조각을 다 먹고 나서 호수 기슭에 앉아 그 반짝이는 검은 눈으로 헤더를 바라봤고, 헤더는 빵을 한 조각 더 잘라서 던져주었어. “너 혹시 드래건 물리치는 방법을 아니?” 그녀가 물었어.

뉴트리아가 빵을 집어 들고는 물었지. “드래건을 왜 물리치려고 하는데?”

헤더는 뉴트리아가 정말로 대답을 했다는 사실에 약간 놀랐어. 그녀는 항상 베어에게 말을 걸었고 이따금 다른 동물에게도 말을 했지만, 대답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 “누군가 드래건을 물리치지 않으면, 드래건이 우리 도시를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어.” 그녀가 대답했지.

뉴트리아는 빵을 먹으면서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말했지. “너의 내면에 놓인 진실을 깨우쳐야 해.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는 진실을 말해야 해.”

- 밖에서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밖에’라는 말은 ‘내면’의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헤더는 내면의 진실을 깨닫고 나서 외부의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 참 나,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건 물에 사는 쥐가 주는 조언이라고. 무슨 단계별 지침 같은 거라도 기대한 거야?

- 글썄요. 헤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구했지만, 뉴트리아는 더 이상 말이 없었어. 나머지 빵을 다 갉아먹고는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가버렸지. “다른 뉴트리아를 찾아봐, 베어.” 헤더가 말했지만, 베어는 그저 꼬리만 흔들 뿐이었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 헤더는 여전히 어떻게 드래건을 물리쳐야 할지 몰랐지만 만약 자신에게 드래건을 물리칠 힘이 없었다면 뉴트리아가 내면의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면 하니 하는 식의 조언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당장 집으로 가 조용히 짐을 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베어와 함께 집을 나섰지. (부엌 조리대 위에 쪽지를 한 장 남겼어. 말하는 설치류의 조언 때문에 드래건과 싸우러 간다는 걸 집에 남아서 부모님께 직접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거든.)

물론 그녀는 뉴트리아가 해준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만약 진실이 정말 그녀의 내면에 놓여 있다면 그건 아마도 그녀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어떤 것이라는 의미겠지. 그래서 헤더는 잠시 쉬어가기 위해 멈출 때마다 드래건에 관한 정보(그리고 언니의 그림들)가 들어 있는 자신의 책을 꺼내서 열심히 들여다봤어. 모든 것을 세 번씩 살펴본 후에도 그녀는 자신이 이미 알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진실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 그게 뉴트리아 같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상대로부터 그녀가 기꺼이 조언을 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라면 모를까.

근처 학교에서 그날의 수업이 모두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고, 헤더는 아이들이 달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봤어. 그는 수학 선생님이었지만 학교 규모가 작아서 읽기, 문법, 그리고 춤까지 가르쳐야 했지.

- 학교에서 춤을 배운다고요?

그래, 여기서는 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실례합니다.” 헤더가 말했어. “저는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혹시 선생님은 드래건을 물리치

는 방법을 아시나요?”

“제가 안다면 이미 누군가에게 알려줬겠죠.” 그가 대답했지. “물론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시도했지만, 기꺼이 들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못 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도 합리적이긴 하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모릅니다.”

“아,” 헤더는 아직 다른 사람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약간 맥이 풀리는 기분을 느낄 수 밖에 없었어. 아마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에게도 물어봐야 했을지도 몰라.

“제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헤더는 그에게 뉴트리아와 책, 그리고 그녀 자신이 알고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 진실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어.

“음, 제 이웃이 발명가입니다. 혹시 우리 집에 들를 용의가 있으시다면 그를 소개해드릴 테니 그에게도 한 번 물어보시죠. 혹시 뭘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함께 걸어가는 동안 그는 자기 이름이 필라드라고 소개했어.

- *전래 판타지 동화에 등장하는 이름치고는 매우 특이하네요.*

그래, 특이한 이름이야. 거기까지. 그는 자신의 이웃은 음악가이자 배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어. 이웃의 이름은 피터였고 매우 친절하기까지 했지. 헤더(또는 베어)를 만나본 적이 없었음에도, 헤더와 베어(그리고 필라드까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든.

그림자가 길어지고 식후 차가 미지근해지는 동안, 그들은 드래건에 관해 들어본 것을 모두 나열했어. 피터는 드래건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 그걸 확인하기 위해 드래건의 은신처로 걸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드래건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는 거야. 물론 드래건이 그 목소리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로 마음먹었을 때만 그렇다는 거지. 또 필라드는 드래건이 보물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 드래건이 여행자들을 잡아 체스 게임을 제안하고 게임에서 이긴다면 풀어주겠다고 한다는 거야. “물론 그런 이야기 속에서는 인간이 속임수를 쓰지 않는 한 항상 드래건이 이기죠.” 필라드가 덧붙였어. “나는 수집한 게임이 무척 많아서 드래건이 전에 해본 적 없는 게임 몇 가지를 당신에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도전이 좀 더 공평해질 겁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졌을 때 다시 신선한 차를 내렸고, 헤더는 꺼내어둔 노트에 메모(“노래를 잘함/게임-체스?”)를 하고 있었어. 어느 순간 그녀는 필라드가 집에 가서 가지고 온 게임을 살피려고 노트를 내려놓았어. 그리고 다시 그것을 집어 들었을 때는 드래건이 아닌 언니에 대해 쓴 반대편이 앞으로 오게 뒤집어 들었지. “로라는 드래건을 좋아했어요.” 헤더가 조용히 말했어. “그러니 로라 쪽에도 드래건 사진을 붙여야겠어요.”

“로라가 누군가요?” 그들이 물었지.

그녀는 언니가 드래건과 대적하러 갔다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설명했어. 로라는 항상 드래건이 근사하다고 믿었고….

- *왜냐하면 드래건은 언제나 멋지니까요.*

…그 사실 때문에 로라가 죽게 된 상황이 더 비극적이고 역설적인 거야.

- *그건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리고 헤더는 그 책을 설명했어.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 그러고 나서 피터는 자신이 어딘가에서 구한 드래건 기사를 찾으러 갔어. 기사에는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사랑스러운 그림 한 점이 있었어. 그건 극도로 예술적인 일종의 도해였어. 그는 나중에 책에 붙이라며 기사를 그녀에게 주었지.

시간이 늦어지자 피터가 피곤한 헤더에게 손님용 침대를 마련해주었어. 헤더는 일찍 일어나고 그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어.

- 헤더가 제일 먼저 일어난 게 확실해요?

필리드와 피터는 이야기를 나누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야. 밝은 하늘 아래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책을 펼쳐 든 헤더는 어느새 책이 다 채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단지 한 쌍의 빈 페이지만이 정확히 책의 중심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었지. 책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채워져 있었어. 한쪽에는 드래건에 관한 메모가, 다른 쪽에는 언니와 관련된 메모와 기념이 되는 자료들이 있었지. 그녀는 망설이며 피터가 준 그림을 들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드래건 쪽으로 가야만 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기까 로라 쪽 절반에는 드래건 그림을 하나도 넣지 않았지 뭐야.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았어. 어쨌든 한쪽을 택해야 했는데, 지금 그녀는 책을 덮어놓고 있었거든. 그래서 뒤집었을 때, 책이 똑바로 있는지 거꾸로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지. 헤더는 책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어. 하늘은 점점 더 밝아지고 햇살도 더 따스해지고 있었지. 그녀는 마침내 책을 옆으로 뒤집었고, 옆 방향과 나란하게 그림을 붙였어. 그래야 어느 쪽에서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제야 뉴트리아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어.

- 깨달았다고요?

맞아.

- 음, 그게 무슨 뜻인데요?

지금 바로 얘기해줄 수는 없어. 그럼 이야기의 흐름을 망칠 것 같거든. 조금만 있으면 그 부분에 도착할 거야.

- 엄만 그 못된 물 쥐만큼이나 나빠요.

헤더는 가방을 챙겨들고 베어를 불러서 출발했어.

- 쪽지는 안 남길 거예요?

필라드와 피터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헤더를 걱정할 거라고 생각해?

- 당연하죠.

헤더는 일어나서 쪽지를 남겼어. 필라드가 자신에게 준 게임과 피터가 드래건이 부르는 걸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던 노래의 악보를 챙긴 후 자신과 베어를 사화산 가장자리에 있는 드래건의 은신처로 빠르게 데려다줄 길을 찾아 나섰어.

- 개는 죽지 않는다고 나한테 약속했던 거 잊지 마요.

개 걱정은 하지 마.

- 혹시 그 말이 내가 헤더를 걱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난 엄마한테 헤더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녀가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안전할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헤더와 베어가 다가가자 드래건이 은신처에서 모습을 드러냈어. 드래건은 사람이 팔을 쭉 뻗고 허리를 펴는 모습처럼 거대한 날개를 펼쳐서 흔들고는 커다란 이빨을 드러내며 입술을 핏았어.

“안녕,” 헤더가 드래건에게 인사했지. “네가 날 잡아먹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네가 정말로 도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내 말은 진짜 위험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조장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거지.”

이게 바로 헤더가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이야, 알겠지?

- 드래건은 정말 멋져요!

그래, 드래건은 정말 멋져!

- 하지만 이렇게 되면 드래건이 자유 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헤더가 자기 책에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깨달은 게 있었어. 그건 드래건이 먹을 것이 아니라 보물을 요구해왔다는 거였지. 그리고 모두가 드래건이 보물을 좋아한다는 것과 때때로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사실로 알고 있었지. 하지만 마을 언저리에 있던 몇 마리 양과 로라처럼 운이 없는 몇 사람이 사라졌을 뿐인데, 그건 드래건이 배불리 먹을 만한 양은 아니었어. 그래서 그녀는 드래건의 턱을 그린 도해를 주의 깊게 살펴봤고, 드래건의 이빨이 곰이나 사자의 이빨과는 모양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곰곰이 생각해본 후에 헤더는 드래건이 천성적으로 물고기를 먹이로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야.

- 그렇다고 해서 그게 드래건이 자기를 열 받게 하는 인간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헤더는 또한 드래건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만큼의 엄청난 불기운을 배 속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어. 물론 칼을 들고 덤벼드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화염을 내뿜을 수는 있지만, 도시 전체를 불태우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

- 어쩌면 모든 게 공허한 위협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 드래건은 똑똑하다는 거야. 허무맹랑한 협박을 하지 않을 만큼은 똑똑했어. 도시에서 드래건을 무찌를 수 있을 만큼 큰 군대를 모아 드래건의 허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때는 특히 그랬지.

-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드래건은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이 드래건도 다른 곳에 있다가 이곳으로 온 거잖아요, 맞죠? 이 도시로 옮겨 왔다고 엄마가 말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드래건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모든 걸 모아두거든. 그리고 월래매트 계곡으로 가든 다른 곳으로 가든 간에 가져가야 할 보물이 없더라도 거처를 옮기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귀찮고 짜증 나는 일이라고. 똑똑하고 분별력 있는 드래건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옮겨 다닐 일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헤더는 드래건에게 일어나는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누군가, 그 다른 존재가 바로 위협의 원천이라고 확신했지. 드래건은 누가, 왜 그런 협박을 하는지 알지도 몰랐어. 그래서 헤더는 가서 물어 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드래건이 그녀의 날개를 다시 접고….

- 암컷 드래건이었어요? 헤더는 그게 암컷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데요?

몇 달 동안 드래건의 해부도를 연구해왔잖아. 그걸 꼭 일일이 알려줘야 해?

- 네, 사실 그래요. 어떻게 수컷과 암컷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색깔이야. 암컷 드래건의 등은 배쪽보다 색깔이 더 어두워. 덕분에 등지를 틀 때 위장이 가능하지. 또한, 암컷은 아래쪽 가장자리에 부채꼴 모양의 날개가 있고 수컷 드래건은 음경이 있어.

이 드래건이, 다시 말하지만, 암컷인 이 드래건이 몸 앞에 양손을 포개고 바닥으로 몸을 낮춰 앉았어. “넌 날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니?” 드래건의 목소리는 약간 놀란 듯했어.

“아니야.” 헤더가 말했지. “게임을 좀 가지고 왔어. 드래건은 게임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거든. 그리고 악보도 가져왔는데, 혹시 악보 읽을 줄 알아? 네가 노래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들었어. 하지만 내가 여기 온 가장 큰 이유는 너를 이용해서 우리 도시를 위협하고 있는 게

누군지, 그리고 내가 널 도울 수 있을지 물어보기 위해서야.”

“마법사야.” 드래건이 말했어. “난 아직 어려.” (실제로 드래건은 헤더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작았어.) “내가 더 나이 들었다면 그는 내게 절대로 이런 짓을 할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그는 자기 마법을 이용해서 내가 여길 떠날 수 없도록 가뒀어. 그가 실제로 나를 시켜 너의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면 난 나 자신을 지켜야 해.”

“우리 언니도 포함된 거야?” 헤더가 목구멍에 커다란 덩어리가 걸린 것 같은 기분으로 물었어.

드래건은 어깨를 으쓱했지. “너를 닮은 사람은 만난 기억이 없어. 이 근처에는 나뿐만 아니라, 도적 떼도 있고 다른 위험도 많아.”

“어떻게 하면 마법사의 마법을 풀 수 있을까?” 헤더가 물었지.

“잘 모르겠어.” 드래건이 대답했어. “어디 가면 그를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는 정말 강력해. 널 그 위험 속으로 보내버리면 너무 끔찍한 기분이 들 것 같아.”

헤더는 그것에 관해 곰곰이 생각해봤어. “내가 그 마법사를 물리쳐야 하는 거야? 그냥 마법을 푸는 법만 알아내면 안 돼?”

“그럼 내가 이렇게 표현해볼게.” 드래건이 말했어. “보통 나는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아. 정말 맛이 없거든. 물론 나를 사슬에 묶인 애완동물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들의 재물을 훔치는 데 이용해 온 마법사는 특별히 예외로 하겠어. 다시 말해서, 네가 마법을 푸는 법을 알아낼 수 있다면 나머지는 내가 해결하도록 할게.”

“최소한 내가 도시로 내려가서 모두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 진짜 위험은 마법사이고 네가 아니라고 말이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드래건이 말했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마법사가 나를 새로운 도시로 데리고 갈 거야. 전에도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자 두 번이나 그렇게 했거든.”

헤더는 이번에도 곰곰이 생각해봤어. 드래건의 말을 종합해보면 마법사는 드래건을 노예로 만들 정도로 강력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은 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지.

“그가 훔친 돈을 어디에 보관해?” 헤더가 물었어.

“내가 지키고 있게 하지.” 드래건이 말하고는 은신처 안쪽을 가리켰어. 헤더는 안을 들여다보고 쥘여 있는 것을 봤어. 동굴의 구석이라 어두웠지만, 헤더는 반짝거리는 금과 루비 더미를 볼 수 있었어.

“들어가서 봐도 될까?” 헤더가 물었어.

“아, 물론이지. 하지만 네가 뭔가 가지고 나가게는 할 수 없어.”

헤더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물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 금은보화는 물론이고 보석, 진주 목걸이 등부터 지폐 뭉치와 그림 몇 점, 그리고 고대 청동으로 주조된 말과 책도 있었어.

그녀는 그 모든 걸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지. 보물 중 하나는 온통 보석으로 장식된 램프였는데, 그녀는 주변을 조금 더 잘 살펴보기 위해 램프에 불을 붙였어. 그때 베어가 짖었지. “내가 수색하는 걸 도와줘.” 헤더가 말했어. “보물이 이곳에서 드래건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마법도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드래건도 안으로 들어와서 손으로 턱을 받치고 앉아 헤더가 보물 더미를 뒤지는 것을 지켜보았어. 금화 속을 샅샅이 뒤지고(그리고 나서 헤더는 그 산처럼 쌓인 금 더미 속을 굴러다녔어. 솔직히 말해서 그럴 기회가 얼마나 자주 있겠어?) 다음으로 헤더는 책을 보기 시작했어. 겉표지에 보

석이 박힌 커다란 성경 몇 권과 셰익스피어의 잃어버린 희곡 중 하나, 『아킬레스』 3부작이 전부 들어 있는 아이스킬로스의 희곡 모음집, 그리고 헤더가 수색하는 동안 드래건이 흥미롭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페르 라 리쿠페라타 살루트 디 오펔리아」¹⁾라는 제목의 악보도 있었어.

- 잠깐, 그거 모차르트와 살리에리가 함께 쓴 오페라 아니에요?

사실 그건 오페라가 아니라 목소리와 피아노를 위한 칸타타였어. 하지만 맞아. 모차르트와 살리에리가 함께 썼고 분실된 거야. 영화에 나온 내용과 역사적 사실이 다르다는 걸 너도 알고 있겠지…….

- 그럼요, 알죠. 실제로는 둘이 아마 친구였을 걸요. 아니면 적어도 친했을 거예요. 드래건은 그게 거기 있는 걸 몰랐었나요?

아, 드래건도 그게 거기 있다는 걸 알았고 전에도 그걸 들여다본 적이 있었어. 하지만 너도 알거야. 가끔씩 산처럼 쌓아놓은 책 더미를 치우다가 우연히 실수로 책 한 권을 펼치고, 이미 다 읽었던 책이지만 그대로 앉아서 또 읽게 되는 걸 말이야. 사실은 몇 시간씩 앉아서 책을 읽을 게 아니라, 그날은 정말 청소를 할 작정이었지만, 그게 드래건에게 일어난 일이야.

헤더는 금 께깍 밑에서 매우 평범하고 전혀 인상적이지도 않은 작은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금과 덩어리가 얼마나 무겁던지 그 께깍을 옮기는 데 지렛대를 사용해야 할 정도였어. 겉으로만 봐서는 사실상 그녀가 만든 책과 매우 비슷해 보였지. 표지에 드래건 그림이 들어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 드래건이 자신의 어깨에 올라탄 한 남자를 비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림이었어.

헤더가 책을 펼치자 갑자기 드래건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했다는 걸 깨달았어. “난 네가 그 책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드래건이 날카롭게 말했어. 그녀는 자신이 찾고 있던 걸 찾아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 가져가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녀가 말하자 드래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파괴하게 할 수도 없고. 난 이것 아무 데도 가져가지 않을 거고 파괴하지도 않을 거야. 그냥 한번 보기만 할거야.” 헤더가 말했어. 램프를 선반에 올려놓고 책을 읽기 위해 그 밑에 자리 잡고 앉는 그녀를 드래건이 지켜봤어.

그건 드래건의 그림으로 가득 찬 일종의 스크랩북이었지만, 각각 다른 방식으로 포로로 잡힌 드래건을 보여주고 있었어. 철창에 갇힌 채거나 거대한 그물로 꼼짝 못 하게 되었거나 인간의 형상에 사슬로 묶여 있는 그림이었지. 헤더는 책을 파괴하면 드래건이 풀려나리라 생각했지만, 드래건은 지금 헤더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어. 헤더는 타고 있는 램프를 책 위로 ‘실수’로 떨어뜨리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았지.

헤더가 펜을 꺼내 들었지만 드래건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페이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뭐 하는 거야?” 드래건이 물었지.

“그림을 좀 추가해 넣으려고.” 헤더가 대꾸했어.

“흠, 그건 괜찮을 것 같네.” 드래건이 말했어.

헤더는 드래건을 휘감고 있는 그물을 거대한 가위가 잘라버리는 장면을 그렸어. 철창을 끝질로 잘라내는 그림과 열쇠로 사슬을 여는 그림도 추가했지.

“이제는 내가 이것 파괴하게끔 내버려 둘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림을 끝냈을 때 헤더가 물었어.

드래건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저었어.

1) “오펔리아의 건강 회복을 위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헤더는 그림 주위에 적힌 단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 “드래건은 단어와 마법에 사로잡혔다”라고 쓰여 있었어. 그녀는 작은 ^표시를 넣고 그 아래 ‘안’이라고 적어서 문장을 “드래건은 단어와 마법에 안 사로잡혔다”가 되게끔 했어. “포로로 잡힌”이라는 표현도 “포로로 안 잡힌”으로 바꾸었고, “무덤”이라는 단어는 “무덤덤한”으로, “죽다”라는 단어로 끝나는 문장은 “죽을 먹다”라고 바꾸었어.

다 고치고 보니 말이 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드래건은 여전히 헤더가 책을 파괴하게끔 내버려둘 수 없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헤더는 자신의 스크랩북을 꺼내 한가운데 붙였던 그림을 떼어내고 마법사의 스크랩북 표지에 덮어 붙였어. 비참해 보이는 드래건 그림을 덮어버렸던 거지.

그러자 드래건이 벌떡 일어섰어. 그러고는 “하아!” 소리 지르며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지 뭐야.

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어. 그래도 헤더는 좀 더 안전한 마무리를 위해 마법사의 스크랩북을 불태워버렸지. 그곳에 있는 보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걸 도난당한 사람들이나 드래건의 것이라 생각한 거야. 하지만 아이스킬로스과 셰익스피어의 유혹에는 저항할 수 없어서 그 책들을 챙긴 후에 쪽지를 남겼어.

이 희곡 작품은 내가 빌려 가. 다 읽고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할게. --헤더.

그녀는 램프를 끄고 드래건의 은신처를 나가 주위를 둘러봤어. 머리 위 높이 떠 있는 드래건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자신에게 한 약속을 잊지 말고 영원히 떠나가기 전에 반드시 마법사를 잡아먹기를 기원했지. 그리고 나서 베어를 불러 도시로 가는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갔어.

- 그제 끝이에요?

아니, 다음 날 아침 도시 사람들은 풍부한 성량으로 칸타타를 부르는 알토 음성을 듣고 깨어났어.

- 드래건이에요?

그래, 당연히 드래건이지. 그리고 노래를 마친 후에 드래건은 자신이 해방되어 사악한 마법사를 잡아먹었으며, 이제는 새로운 땅을 탐험하기 위해 자신의 길을 갈 거라고 말했어.

- 누가 자기를 풀어줬는지도 얘기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드래건은 헤더가 유명해져서 꺾꺾 참으며 살아야 하는 삶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

-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보상은요? 도시를 구하면 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다음 날, 그녀는 우편을 통해 소포를 하나 받았어. 그녀가 평생 평평거리면서 먹고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금덩이로 가득 찬 상자였지. 하지만 드래건은 필라드의 게임과 피터의 악보는 챙겨갔어.

- 헤더는 도시를 구한 보상으로 낭만적 인기를 끌기로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너는 네가 왕국의 영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게 관심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헤더는 다시 필라드와 피터를 찾아가서 드래건을 찾아갔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주었고, 그들은 헤더를 다시 만나게 된 데 기뻐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녀와 필라드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고 나중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

- 그들이 드래건을 다시 만났어요?

아니.

- 난 그들이 드래건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음, 드래건은 상하이, 바르셀로나, 마이애미 같이 먼 도시에서 종종 엽서를 보내왔어.

- 그건 직접 만나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아마도.

- 분명히 드래건은 다시 찾아왔을 거예요. 한 번쯤은요. 헤더가 마법사에게서 풀려나게 해줬잖아요!

네 말이 맞아. 헤더가 해방하게끔 해주었지. 헤더와 필라드가 결혼한 지 10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그들은 해변에 아이와 함께 앉아서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때 헤더는 구름 속에서 드래건을 보았지. 처음에는 단지 태양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거대한 날개를 보고는 드래건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녀는 필라드와 그들의 아이도 드래건을 볼 수 있도록 소리치며 드래건을 가리켰지.

그날의 지는 해 속에서 그들 모두는 단 몇 분 동안 드래건을 보았어. 그리고 어둠이 깔리고 별들이 나올 때, 드래건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지.

저자의 노트

2010년 5월, 의료 위기를 겪고 있는 친구를 위한 자선 경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기 질환으로 간 기증이 필요했습니다. 남동생에게서 간을 기증받아 이식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동생의 이동 경비와 수술 후 일을 쉬는 기간에 써야 할 돈이 필요했죠.)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제안 내용: 당신, 또는 당신이 선택하는 실제 인물(당사자의 동의하에)을 주인공으로 하는(또는 당신이 원한다면 악당으로 하는) 최소 1,000단어 분량의 SF/F 단편 소설을 써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주인공으로 하고, 그 아이들이 읽을 만한 이야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만약 친구에게 깜짝 선물로 주고자 한다면 그 또한 물론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등장인물이 반대할 실제 인물의 이야기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웅으로 등장할지, 악역으로 등장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캐릭터가 당신으로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하위 장르, 플롯, 프롬프트 등 당신의 구체적인 요청을 수용할 것입니다. 원래 노골적인 섹스 이야기는 쓰지 않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으으으음, 좋아요. 아주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신다면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경매는 내 대학 친구 필라드가 낙찰받았고, 그는 자신의 아내 헤더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야기의 세부 사항 중 많은 부분은 헤더의 실제 삶에서 가져왔습니다. 베어라는 이름의 개는 물론이고 스크랩북도. (헤더와 그녀의 언니들은 한때 스크랩드래건이라는 스크랩북용품점을 공동으로 소유했었습니다.) 필라드와 다른 친구 피터는 카메오로 출연했구요.

플롯 구성으로 아이디어를 쥐어짜고 있을 때, 헤더를 공주로 만들자는 내 제안을 필라드가 즉시 거절하더군요. 그러면서 오프닝 라인이 떠올랐고 그 지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두 명의 독자를 위해 이 작품을 썼습니다. 필라드와 헤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독자에게 매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즐거운 놀라움이었습니다!